

# ‘여수’ 부두 체선율 27%, 부산항의 40배

### 여수광양항 투자액도 부산항(4조2천억)의 25% 수준 주철현 “항만 투자 불균형이 해상교통 안전까지 위협”

정부의 항만투자 불균형이 심각한 항만 체선율과 물동량 감소 등 해상교통 안전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 내 4개 부두(중흥, 낙포, 사포, 석유화학)의 평균 체선율은 26.68%였다.

같은 기간 국내 주요 국가항만인 부산항은 0.28%, 울산항은 1.75%, 인천항 0.7

5%로 여수석유화학 부두가 20~40배 높은 체선율을 기록했다.

심각한 항만 체선율은 정부의 항만투자에 반비례하고 있다.

실제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에서 여수광양항 투자액은 부산항(4조2천880억)의 25%, 인천항(1조7천990억)의 61%, 그리고 울산항(1조7천990억)의 60% 수준이다.

이 같은 투자불균형은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서도 확인된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정부의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서도 여수광양항 투자자는 부산항 투자액 5조2천420억 원의 40%에 불과하다.

정부의 여수광양항에 대한 투자불균형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의 체선율 심각과 해상교통 안전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여수해수청이 지난해 실시한 ‘여수광양항 항로 안정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 피크타임 해상교통혼잡도(현재/5년 후)는 울촌2산단이 52.83%→137.41%, 제2항로는 106.6%→112.7%, 제3항로는 110%→121%, 제4항로는 110.6%→129.7%로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정부의 투자 불균형에 이어 지역 내에서도 투자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는 여수광양항 물동량의 48%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 이후 지난 9년 동안 전체 투자사업비 1천714억 원 중 10%인 184억 원만 투자되는 데 그쳤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와 지역 내 관련 기관의 항만투자 불균형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의 체선율 악화는 물론 선박의 해상교통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화물선 체선 해소와 신성장 동력을 위한 부두 증설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재난 안전체험해요” 6일 오전 북구 오치동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을 찾은 초등생들이 광주소방안전본부 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집중호우 시 대피하는 요령을 익히고 있다. 오는 19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시범운영중인 체험관은 호우·산악·지진·화재·응급안전 등 8개 구역 23개 체험시설로 구성, 일상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전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다. /김애리기자

# 전남 민관협업 ‘국산김치 사용 표시제’ 순항

### 목표 90% 4천499개소 인증 ‘전국 1위’ 기록

전남도가 지난 4월 전국 첫 시행한 민·관 협업형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인증실적이 올해 목표한 5천개소의 90%를 달성하는 등 국내 김치 수입량 감소를 견인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를 시행하기 전 도내 ‘국산김치 사용표시제’ 인증업체는 1개 음식점에 불과했으나 제도 시행 5개월이 지난 9월 말 현재 4천499개소로 크게 늘었다. 이는 ‘국산김치 사용표시제’를 인증받은 전국 총 9천862개 업체의 46%로 전국 최대 실적이다.

시·군 별로 여수가 가장 많은 489개소를 기록했으며 순천 438개소, 광양 369개소, 목포 330개소, 해남 297개소, 나주 281개소, 무안 240개소, 신안 220개소 등이다.

유형 별로 음식점이 3천26개소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어린이집을 포함한 학교 1천308개소, 시·군 등 공공기관, 기업체, 병원 등 단체급식소 158개소, 휴게소 7개소 등이다.

‘국산김치 사용표시제’ 인증업체 수는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1천220개소에 불

과하던 것이 무려 8배 증가한 9천862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남의 민·관 협업형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사례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도 별로 충남 990개소, 경기 818개소, 서울 629개소, 광주 422개소, 전북 379개소, 경북 303개소 등이다.

이처럼 국산김치 사용표시제 등 김치 소비 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중국발 알몸 배추질염 동영상 보도 이후 수입산 김치 기피 현상까지 맞물려 김치 수입량은 크게 줄었다. 실제 지난 7월 말까지 누적 김치 수입량은 14만1

천627t(8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4천685t(960억원)보다 8.4% 줄었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등을 인증하는 제도다. 도와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인증을 바라는 음식점, 기관 등은 시·군 농업부서나 읍·면·동 주민복지센터, 대한민국의 김치협회(02-6300-8780)에 문의한 후 전자우편(atain23@hanmail.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재정기자

# 김지사 “전남, 우주산업 중심지 육성”

### 누리호 발사 계기 엔지니어 유치 등 선제 대응 주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오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전남이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도록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하는 누리호가 국민의 한결같은 여망을 안고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우주산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가고 있다”며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 및 엔지니어 유치, 우주과학 복합 테마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차별화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공공의료원의 증충환자 치료 체계 구축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최근 코로나 기세가 다

소 꺾이는 추세고 특히 전남은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위드코로나 방역체계를 검토하는 것에 발맞춰 도입강진·순천의료원과 목포시립의료원이 검증 뿐만 아니라, 증충환자도 관리하도록 시설장비와 인력, 종사자 교육 등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SOC 분야 사상 최다인 12조원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과 관련, 김 지사는 “SOC가 갖춰진다고 모든 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갖춰지지 않고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고흥·원도, 고흥 봉래 2개 구간이 21년 만에 국도로 승격하고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후포-비금 연도교 사업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됐다고 해서 바로 예산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란 생각으로 앞으로 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김재정기자

# 市, 시민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광주시 시민안전교육센터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광주대학교에서 ‘시민안전교육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1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 시민안전교육센터는 지난 7월 안전 문화의식 확산과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광주시의 위탁을 받아 설립된 기관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은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6대 안전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강사로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교수법 습득을 목표로 진행된다.

교육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활동 중

인 시민안전 전문강사와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 소속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재난안전 인문학 ▲재난안전 법제도 ▲생활안전관리 등 행정안전부 6대 안전분야 ▲재난 및 사고사례 ▲응급처치교육 ▲교수법 등 시민안전교육 전문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신청은 시민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csec.or.kr)를 이용하면 된다. 접수처는 전자우편(anchon100kds@hanmail.net) 또는 팩스(02-780-4625)로 발송하면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오승기기자

# 노벨 화학상에 독일 리스트·미국 맥밀런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독일의 베나민 리스트와 미국의 데이비드 맥밀런이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비대칭 유기촉매 반응”이라고 하는 분자를 만드는 정밀한 도구를 개발한 공로로 리스트와 맥밀런에게 노벨 화학상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두 과학자는 상금 1천만 크로나(약 13억5천만원)를 나눠 받는다.

지난 4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까지 발표됐고 7일 문학

상, 8일 평화상, 11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차례로 공개된다.

올해 노벨상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말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시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시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립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립니다.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별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 지사오른 상담 ◀

필자적 편의 법철자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